

이에 본고에서는 II장에서 국가별·시기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, III장에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, IV장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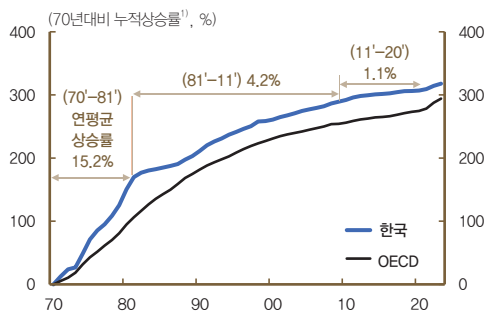
## II.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(stylized facts)

국내 물가의 장기 추이를 보면 1980년 이전까지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그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, 2010년대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는 연평균 1%대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<sup>3)</sup>([그림 4] 참조).

하지만 품목별 물가 추이는 기술발전 및 생산성 향상, 세계화, 소비패턴 변화,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상당히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 왔다. 1990년대 이후 상품물가를 보면 과일·채소 등 식료품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내구재 등 주요 교역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. 서비스물가의 경우 통신비가 기술혁신으로 하락하고 전기료는 정책 요인으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여타 서비스가격이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오름세를 지속<sup>4)</sup>하였다([그림 5]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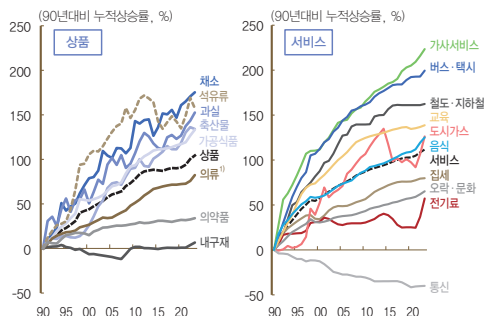
이러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과 그 변화를 주요국 비교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 stylized facts 이 관찰된다.

[그림 4]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장기 추이



주: 1) 로그치분(×100)의 누적합  
자료: OECD, 통계청

[그림 5] 국내 품목군별 소비자물가 장기 추이



주: 1) 품목성질별 구분에 따른 섬유제품  
자료: 통계청

### Fact 1 전체 물가수준<sup>5)</sup>은 소득수준 감안시 주요국 평균

우리나라의 전체 물가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지만([그림 6] 참조)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평균 정도이다.

3) 1990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상승 속도는 OECD국가의 평균적인 물가상승 속도와 유사하다.

4) 버스·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에 1990년 이후 빠르게 상승했는데, 여기에는 1990년 이전 요금수준이 여타 품목 대비 낮았던 점, 석유류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점 등이 작용하였다.

(기간중 상승폭, 배)	소비자물가	열차료	시내버스료	택시료
▶ 75~90년	4.1배	2.4배	4.0배	2.9배
▶ 90~05년	1.9배	2.6배	5.3배	2.5배

5) 본고에서 주요국 비교는 국가 또는 도시의 특정 상품 및 바스켓의 상대가격을 비교한 것이다. (상대가격 =  $(P/P^*)/e$ ,  $P$  자국물가,  $P^*$  비교대상국 물가,  $e$  명목환율). 각국의 상품 또는 바스켓의 가격을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OECD평균을 100으로 하여 물가수준을 비교하였다. 자세한 설명은 〈참고 1〉 「물가수준의 개념 및 지표」를 참조하기 바란다.